

제주지역 佛敎 石造美術의 특징과 의의

嚴基杓*

- I. 서론
- II. 石造美術의 양식적 특징과 조성 시기
- III. 石造美術의 미술사적 의의
- IV. 결론

국문요약

제주지역은 오래전부터 육지를 비롯하여 외국과의 교류가 있었음이 기록이나 유적, 유물 등을 통하여 밝혀지고 있다. 따라서 제주지역에도 고대에 불교가 전래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 이러한 사실을 입증해주는 결정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고려시대에는 불교가 성행하면서 제주지역도 불교 신앙이 확대되었으며, 여러 곳에 사찰이 창건되었다. 고려후기에는 제주도가 중요한 지역으로 부각되면서 여러 사찰들이 창건되면서 불교문화도 크게 발전했다. 조선시대에는 중앙정부에 의한 억불숭유정책이 추진되었지만 제주지역은 여전히 불교가 신앙되었다. 다만 조선후기 제주지역의 불교는 일시적인 휘발정책에 의하여 위축되기도 했지만 불교신앙은 지속되었다.

현재 고려와 조선시대 제주지역의 불교문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적은 수정사지, 법화사지, 원당사지, 존자암지 등이다. 그리고 제주지역 불교문화의 양상을 비교적 잘 보여주는 유물은 수정사지 청석탑, 원당사지 오층석탑, 존자암과

* 단국대학교 교수.

태암사지 부도, 동자복과 서자복 등 내구성이 강한 석조미술이다.

제주지역의 불교문화는 재래의 민간신앙과 습합된 양상을 보여 통불교로서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동시대 육지의 불교문화와 친연성을 보이고 있어, 제주지역의 불교문화는 육지와 지속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발전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제주지역에는 시대별 불교문화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유적과 유물이 많지 않은데, 앞으로 많은 자료들이 출토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제주, 탐라, 불교, 사찰, 사지, 석조미술.

I. 서론

濟州는 각종 史書에 耽羅·儋羅·耽牟羅·毛羅·度羅·涉羅 등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육지에서 바다 건너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래서 제주지역이 오래전부터 육지와는 다른 문화를 가졌을 것이라는 선입관이 있기도 하다. 그런데 최근 제주 지역에서 많은 유적들이 조사되었는데, 선사시대 이후 육지와 동일한 문화가 향유되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¹⁾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고대 문화의 주류는 불교문화였다. 불교가 삼국시대 공인된 이후 통일신라시대의 중심적인 신앙으로 자리 잡으면서 불교문화도 크게 융성하게 된다. 고려시대에는 불교가 國是로 채택되어 전국에 걸쳐 많은 사찰들이 창건되거나 중창되는 등 많은 佛事가 진행하였다. 제주지역도 예외 없이 信仰과 禮佛을 위한 많은 불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려후기에는 제주도가 중요 지역으로 부상하면서 여러 사찰이 창건되거나 중창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지배층의 抑佛崇儒 정책으로 불교가 전반적으로 위축되었지만 특정 왕대를 중심으로 불사가 성행하기도 했다. 그런데 朝鮮後期 濟州牧使

1) 국립제주박물관, 『섬, 흙, 기억의 고리』, 2009; 국립제주박물관, 『유적과 유물을 통해 본 제주의 역사와 문화』, 서경문화사, 2009.

었던 李衡祥 등에 의하여 毀佛政策이 추진되면서 제주지역의 사찰이 대부분 훼손되거나 파괴되었다. 이러한 점은 오늘날 제주지역의 고대 불교 문화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게 하는 측면이 되고 있다.

제주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교 관련 유적 유물이 많지 않아 불교의 양상과 특징을 파악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여러 연구자들에 의하여 제주지역 불교사와 불교문화에 대한 많은 연구 성과가 있었다.²⁾ 현재 제주지역에는 많지는 않지만 비교적 내구성이 강한 石塔, 石佛, 浮屠 등 불교 관련 석조미술품이 남아 있다. 이러한 석조미술품은 최초 조성된 원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찰의 연혁이나 양상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자료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주지역 불교 석조미술에 대한 검토는 많지 않았다. 이에 필자는 현존하는 제주지역 불교 석조미술의 양식적 특징과 조성 시기, 검토 문제, 미술사적 의의 등을 중심으로 고찰하여 보고자 한다.

II. 石造美術의 양식적 특징과 조성 시기

제주지역에는 사찰 가람과 관련하여 근현대기 이전에 건립된 木造建築物은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제주지역은 육지와 달리

2) 濟州地域 佛敎文化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 성과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다. 姜彰彦, 「濟州道の 佛蹟」, 『耽羅文化』 12,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1992; 김봉욱, 「제주불교의 기원」, 『耽羅, 歷史와 文化』, 제주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 1998; 金東棼, 「濟州 法華寺의 創建과 그 變遷」, 『耽羅文化』 20號,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1999; 강창화, 「濟州 法華寺의 考古學的 研究」, 『濟州道史研究』 9, 濟州道史研究會, 2000; 金日宇, 「고려후기 濟州 法華寺의 重創과 그 位相」, 『韓國史研究』 119, 韓國史研究會, 2002; 고재원, 「옛 원당사지 발굴 조사와 역사고고학적 의의」, 『제주문화』 12, 제주문화원, 2006; 박현규, 「제주도 法華寺 三尊佛像과 南京 大報恩寺의 關係」, 『中國史研究』 제58집, 중국사학회, 2009; 조영록, 「濟州 法華寺 三尊佛의 南京 移置와 滿空의 入明 傳法」, 『明清史研究』 제35집, 명청사학회, 2011; 현문필, 「존자암의 창건에 관한 고찰」, 『제주도연구』 제35집, 제주학회, 2011; 정성권, 「제주도 돌하르방의 기원과 전개」, 『耽羅文化』 제50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5.

濟州牧使 郭屹(1565年 부임)과 李衡祥(1702年 부임)의 毀佛政策 등으로 인하여 16~18세기 대에 불교문화가 크게 위축되었다. 특히 李衡祥은 寺刹과 神堂을 철저히 배격하여 제주지역의 불교 쇠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 등으로 오늘날 제주지역에는 건립 시기가 올라가는 목조건축물은 남아 있지 않고, 그러한 건물에 활용되었던 건축 부재들 위주로 전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水精寺址, 法華寺址, 元堂寺址, 尊者庵址 등에 유존되고 있는데, 대부분 석재들로 기둥을 받쳤던 礎石이나 기단부에 사용된 長臺石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또한 여러 寺址에서 출토된 기와편과 자기편을 비롯한 각종 공예품이 제주지역 고대 불교문화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불교 신앙의 주요 대상인 佛像은 대부분 육지에서 전래되었으며, 佛畫도 희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³⁾

제주지역은 현무암만 생산되는 지역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불교 관련 석조미술품이 많지 않은 편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제주지역에 남아있는 대표적인 불교 관련 석조미술품은 水精寺址 出土 靑石塔材, 元堂寺址 五層石塔, 尊者庵과 泰岩寺址 浮屠 등이다. 그리고 석불은 東資福으로 불리는 健入洞 福神彌勒, 西資福으로 불리는 龍潭洞 福神彌勒이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석조미술품들은 제주지역 불교문화의 양상을 가장 잘 전해주고 있는데, 이를 조성 시기에 따라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1. 水精寺址 靑石塔

고려시대 제주지역에는 소위 3대 사찰로 水精寺, 元堂寺, 法華寺가 있었다. 이들 사찰들은 제주지역의 북부와 남부에 위치하여 당시 제주지역

3) 현재 제주지역에서 삼국이나 통일신라시대 조성된 佛像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고려시대에는 여러 軀의 佛像이 조성되거나 외부에서 옮겨와 사찰에 봉안되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러한 불상들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현재 제주지역의 西山寺, 月溪寺, 觀音寺, 寶林寺, 삼평사, 용문사 등에 육지에서 옮겨온 朝鮮時代 불상들이 봉안되어 있다. 그리고 正房寺에는 順天 大興寺에서 이안된 石造如來坐像이 봉안되어 있다(崔仁善, 『제주도 正房寺 所藏 순천 大興寺 石造如來坐像과 腹藏物』, 『文化史學』 第23號, 한국문화사학회, 2005, 157-174쪽).

불교계와 신앙 활동의 중심이 되었다. 그런데 이 사찰들은 어느 시기에 모두 廢寺되었으며, 근현대기에 들어와 法華寺와 元堂寺는 중창되어 오늘날까지 법등을 잇고 있으며, 水精寺址는 공원으로 조성되었다(도 2).

이중에서 水精寺는 金尙憲의 『南槎錄』에 실린 金淨(1486~1521년)이 쓴 「都近川水精寺重修勸文」에 의하면,⁴⁾ 원나라 皇后가 都近川에 願刹로 창건하였으며,⁵⁾ 원나라에서 가져온 2軀의 큰 불상이 봉안되었다고 한다.⁶⁾ 그리고 『太宗實錄』에 의하면 1408년 130명이었던 노비를 30명으로 줄였다.⁷⁾ 조선 태종은 寺院田을 혁파하는 등 불교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나갔는데, 朝鮮初期 抑佛政策의 분위기 속에서 水精寺도 서서히 쇠락해 갔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수정사는 조선초기에도 제주지역의 중요 사찰로 법등이 유지되고 있었다. 이후 1694년 濟州牧使였던 李益泰의 『知瀛錄』에 의하면,⁸⁾ 당시 승려들이 머물지 않는 水精寺의 재료를 실어다 演武亭을 수리하였다고 한다.⁹⁾ 이러한 기록으로 보아 수정사가 17세기 후반 경에 廢寺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정사지 발굴 조사 시에 건물지와 탐지 등 여러 유구들이 확인되었으며, 고려초기 청자에서부터 조선후기 백자까지 다양한 시기의 자기편과 기와편들이 수습되었

4) 冲庵 金淨은 1519년 조광조 등과 함께 己卯士禍에 연루되어 1519년 11월 錦山에 유배되었다. 그리고 1520년 진도로 유배되었다가 다시 제주로 유배되어 1521년 제주에서 사약을 받고 사망하였다. 金淨은 제주에서 사약을 받기 직전 高根孫의 부탁을 받고 「都近川水精寺重修勸文」을 썼다.

5) 1918년 간행된 金錫翼의 『耽羅紀年』에도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6) 金尙憲, 『南槎錄』, 風物. 『南槎錄』은 淸陰 金尙憲(1570~1652년)이 32세 때인 1601년 按撫御史로 濟州에 파견되어 1602년 1월 24일 朝天館을 통해 제주도를 떠날 때까지의 일기체 기록이다.

7) 『太宗實錄』 卷15, 太宗 8年 2月 28日(丁未).

8) 李益泰가 1694년 5월 濟州牧使로 부임하여 1696년까지 섬을 두 번 순시하며 기록한 책이다.

9) 朝鮮時代 들어와 寺刹이 廢寺 또는 毀撤되어 官公署라 할 수 있는 公廡, 驛院, 鄕校 등으로 전환되기도 했으며, 儒敎 관련 시설인 書院, 齋室, 書堂, 精舍 등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많았다. 또한 사찰 관련 시설물이나 건축 부재들이 다른 용도로 전용되거나 다른 시설물에 재활용되는 경우도 많았다(엄기표, 「조선시대 사찰에서 유교 관련 시설로의 전환 - 불교와 유교의 병존」, 『도봉서원 기록으로 되살린 역사와 건축』, (재)역사건축기술연구소, 2015, 183-220쪽).

10) 제주대학교 박물관, 『水精寺址』, 2000(원색도판 부분).



<도 1> 水精寺址 발굴 조사 항공사진¹⁰⁾



<도 2> 水精寺址 전경(2014년)

다(도 1). 이러한 것으로 보아 수정사는 늦어도 고려초기에는 창건되었으며, 이후 중창을 거듭하면서 조선후기까지 범등이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¹¹⁾

水精寺址에서는 발굴 조사 시에 육지 사찰에서도 보기 드문 靑石塔材들이 출토되었다.¹²⁾ 이는 가람에 예불과 신앙의 대상으로 청석탑이 건립되었음을 알려준다(도 3, 5). 현재 제주지역에서 유일하게 수정사지에서만 청석탑이 확인되었는데, 그 재료가 점판암으로 제주지역에서는 생산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수정사에 건립되었던 청석탑은 육지에서 옮겨온 것임을 알 수 있다. 청석탑은 고려시대 많이 제작되었는데, 재료를 구하기 힘들고, 고급스러운 귀족 취향의 색깔 등으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王室이나 貴族들의 후원에 의한 중요 사찰에 많이 건립되었다. 이러한 청석탑이 수정사에 건립되었다는 것은 당시 수정사가 제주지역의 중요 사찰이었음을 짐작케 한다. 또한 청석탑을 외부에서 제작하여 옮겨 세운 것으로 보아 당시 육지와 제주지역 간에 불교문화의 교류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현재 수정사지 청석탑은 부재들이 파손되거나 결실된 상태로 일부만 출토되어, 원래의 결구 수법과 양식 등을 비롯하여 전체 層數 등

11) 제주대학교 박물관에 의하여 水精寺址에 대한 시굴조사는 1998년 6월 29일부터 1998년 10월 26일까지 실시되었으며, 발굴조사는 2000년 2월 14일부터 2000년 6월 12일까지 실시되었다. 발굴 조사 시 景德元寶, 元豐通寶, 政和通寶 등 北宋代 동전들을 비롯하여 純靑磁들이 출토되어 늦어도 12세기경에는 창건된 사찰로 확인되었다(제주대학교 박물관, 『水精寺址』, 2000, 241-245쪽).

12) 현재 靑石塔 部材들은 國立濟州博物館에 소장 전시되어 있다. 이 자리를 빌어 자료를 조사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협조해주신 국립제주박물관 장재근 선생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는 상태이다.

고려시대 많이 건립된 청석탑은 화강암으로 제작된 전형적인 석탑들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基壇部-塔身部-相輪部로 크게 구성되었다. 그런데 청석탑의 기단부는 화강암으로 건립된 석탑들이 일반적으로 채용한 架構式 基壇보다는 상하 여러 단으로 결구된 臺石式 基壇이 많이 적용되었다. 현재 수정사지 청석탑의 기단부는 모든 부재가 온전하게 남아 있지 않아 원래 모습은 알 수 없지만, 발굴 시 출토된 부재들로 보아 대석식 기단으로 구성된 육지의 일반적인 청석탑과는 달리 가구식 기단으로 구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수정사지 청석탑은 상하 2층의 가구식 기단으로 구성되었는데, 하층기단은 화강암으로 치석된 부재들이 결구되었으며, 상층기단은 점판암으로 제작된 板石形 부재를 面石으로 결구했다. 이와 같이 상층기단은 판석형 부재를 면석부에 활용했는데, 사방에 각 1매씩 총 4매의 판석형 부재를 결구했다. 그리고 탑신부는 출토된 부재들로 보아 상당히 높게 구성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수정사지 청석탑이 가구식 기단을 적용하여 비교적 높게 구성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外觀을 조화롭고 안정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한 수법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점은 수정사지 청석탑이 당대 석탑의 전형적인 기단부 결구 수법과 양식을 잘 알고 있었던 우수한 장인에 의하여 설계 시공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리고 仁王像과 門扉가 함께 새겨진 판석형 석재는 탑신부의 탑신석 부재로 1층 탑신석 정면에 활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도 4). 1층 塔身은 4매의 판석형 석재들이 결구되어, 다른 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구성되었다. 이처럼 仁王像이 새겨진 탑신석을 1층 탑신 정면에 결구한 것은 석탑 설계자가 佛法和 舍利에 대한 守護의 의미를 분명히 나타내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발굴 조사 시 수습된 다른 층들의 탑신석들은 모두 판석형인데, 모서리를 경사지게 다듬거나, 한단 낮게 치석하여 서로 맞물리면서 견고하게 결구되도록 정교하게 고안되었다. 또한 일부 탑신석은 뒷면에 층수와 결구 방향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명문을 새기기도 했다(도 6). 이러한 것으로 보아 현재는 결실된 부재가 많아 확인이 어렵지만 원래는 石工이 모든 층마다 층수를 알 수 있도록 銘文을 새겼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석공이 설계에 따라 각 층의 규

모에 맞게 관석형으로 치석한 후, 먼저 육지에서 층에 따라 시물레이션을 하면서 층수를 표시한 후, 그 부재들을 그대로 제주도의 水精寺로 옮겨와 조립했음을 시사한다. 즉, 수정사 청석탑은 원래부터 육지에 세우지 않고, 제주도의 수정사로 옮겨와 세울 계획이었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수정사 청석탑이 주문에 의한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그런데 수정사지 청석탑은 모든 탑신 부재는 아니지만 18石으로 상당량의 탑신 부재가 수습되었는데, 이상하게도 屋蓋에 활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부재는 출토되지 않았다. 발굴 시 노출된 유구와 유물들의 상태로 보아 옥개가 확인되지 않는 점은 여러 의문점을 주고 있다. 왜냐하면 고려시대 청석탑의 일반적인 제작 기법으로 보아 수정사지 청석탑의 옥개도 탑신석과 함께 처음부터 점판암으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발굴 시 塔材들의 출토 상태로 보아 탑신부가 어느 시기에 함께 붕괴된 것으로 보여 옥개가 탑신석과 함께 출토되어야 정상적이기 때문이다. 청석탑의 하층을 고려해서도 옥개는 석재로 제작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옥개석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 수정사지 청석탑의 옥개석은 어느 시기에 다른 용도로 전용하기 위하여 한꺼번에 일제히 반출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1694年 濟州牧使였던 李益泰의 『知瀛錄』에 의하면 廢寺된 수정사의 건축 부재들이 演武亭을 수리할 때 재활용되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옥개석도 당시 반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수정사지 청석탑의 옥개석이 반출되어 재활용되었다면 옥개석의 형태가 다른 용도로의 전용이 쉽지 않은데,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는 의문이다.

그리고 수정사지 청석탑에서 주목되는 것은 2層 이상의 塔身石 표면에 1~2字의 梵字를 크게 새겼다는 점이다. 각 층 탑신석 표면에 고려시대 성행했던 梵字體인 悉曇(Siddham)體로 梵字를 음각했는데, 모든 범자가 정연한 字體를 보이고 있어 당시 眞言이나 陀羅尼를 잘 알고 있던 書者가 쓴 것으로 보인다. 탑신석 부재 중에 8石은 左右에 범자 2字, 10石은 한가운데에 범자 1字를 새겼다. 이 중에서 범자 2字를 새긴 塔身石이 梵字 1字를 새긴 부재보다 규모가 큰 것으로 보아 下層에 활용되었던 부재임을 알 수 있다(도 7, 8). 이와 같이 梵字로 眞言이나 陀羅尼를 새기는 것은 고려시대 元나라 불교의 영향을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나타나

기 시작했다.¹³⁾ 현재 모든 층의 탑신석이 남아있지 않아 어떤 眞言 陀羅尼를 새겼는지는 알 수 없지만 탑에 대한 신앙이나 공양의 의미를 담고자 陀羅尼를 새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정사지 청석탑은 결실된 부재가 많아 전체 層數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七’과 ‘南’이라고 글자가 새겨진 塔身石 부재가 있어 최소 7層 이상의 탑이었음을 알 수 있다(도 6). 그런데 7層 南面에 결구되었던 탑신석보다 규모가 작은 부재가 확인되고 있어, 수정사지 청석탑은 9층이나 11층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¹⁴⁾ 현재 수정사지 청석탑의 조성 시기는 관련 기록이 없고, 편년을 설정하는데 양식적으로 중요한 옥개석이 발견되지 않아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청석탑이 고려시대 들어와 일반적으로 건립되었으며, 탑신 표면에 범자로 쓴 眞言 陀羅尼를 새긴 점 등으로 보아 수정사지 청석탑은 고려후기에 건립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도 3> 水精寺址 靑石塔址¹⁵⁾



<도 4> 水精寺址 靑石塔材
(1층 塔身石, 국립제주박물관 소장)

13) 엄기표, 「韓國 梵字 眞言銘 銅鏡의 特徵과 意義」, 『역사문화연구』 제58집,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16, 35-82쪽.

14) 현재 상층기단 면석부에 활용된 것으로 보이는 부재는 3石, 1층 탑신에 활용된 것으로 보이는 부재는 1石(仁王像이 새겨진 부재)이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2층 이상의 탑신에 활용된 부재는 총 18石이 수습되었다. 따라서 元堂寺址 靑石塔이 9층이었다면 14石이 추가적으로 더 있어야 하며, 11층이었다면 22石이 추가적으로 더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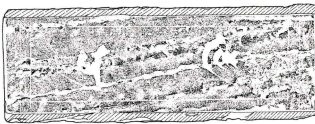
15) 국립제주박물관, 『濟州의 歷史와 文化』, 2001, 123쪽.



<도 5> 水精寺址 靑石塔材
(塔身石, 국립제주박물관 소장)



<도 6> 水精寺址 靑石塔材
(7층 남면 塔身石, 좌측에 ‘七’, 우측에 ‘南’이라고 음각, 국립제주박물관 소장)



(pa ni)

<도 7> 水精寺址 塔身石 拓本
(梵字 2字)



(ni)

<도 8> 水精寺址 塔身石 拓本
(梵字 1字)

2. 元堂寺址 五層石塔

元堂寺는 제주시 삼양동에 위치한 사찰로 창건 이후 일시적으로 폐사되었다가 다시 중창되어 현재에도 법등을 잇고 있는 제주지역의 대표적인 古刹이다. 이 사찰은 『耽羅志』 등에 창건 연기가 수록되어 있는데,¹⁶⁾ 太子가 없던 元나라의 順帝가 北斗의 명맥이 비친 三疊七下峰에 塔을 세워 佛供을 드려야 한다고 승려의 계시를 받은 제2의 황비였던 奇皇后의 간청으로 창건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원당사에 佛塔을 세우고 使者를 보내 佛供을 드린 결과 아들을 얻었다고 전해진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원당사는 고려후기 창건되었을 것이다. 그동안 元堂寺址에 대한 여러 차례의 조사에서 연화문 막새와 ‘大天’銘 기와, 어골문과 격자문 기와편, 청자편과 백자편, 중국 청자편 등 다양한 유물들이 출토되었다¹⁷⁾(도 9, 10). 이 중에서 기와편들은 제작 시기가 10세기 대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16) 李元鎮, 『耽羅志』, 濟州, 佛宇. 『耽羅志』는 李元鎮(1594~1665年)이 1651年 5月 21日 濟州牧使로 부임하여 1653年 移任할 때까지의 기록이다.

17) 제주문화예술재단, 「元堂寺址」, 『제주시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2007.



<도 9> 元堂寺址 출토 막새¹⁸⁾



<도 10> 元堂寺址 출토 청자편¹⁹⁾



<도 11> 元堂寺址 五層石塔 전경

추정되었으며, 청자편들은 11~12세기 대에 걸쳐 생산된 고급 강진청자들과 친연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²⁰⁾ 즉, 원당사의 初創 時期가 원나라 奇皇后와 관련된 창건 연기보다 더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 원당사는 늦어도 고려초기에는 창건되어 범등을 잇다가 고려후기에 와서 크게 중창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당사지 오층석탑은 2002년 해체 복원되기도 했으나, 初建 당시의 원위치인지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이 석탑은 전부재가 玄武巖으로 만들어져 제주도의 지역적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문화유산이자 석조미술품이다.²¹⁾ 현재 원당사지 오층석탑은 단층으로 마련

18) 국립제주박물관, 『섬 흙 기억의 고리』, 2009, 원당사지 부분 도판 인용.

19) 위의 책, 원당사지 부분 도판 인용.

20) 고재원, 「옛 원당사지 발굴조사와 역사고고학적 의의」, 『제주문화』 12, 제주문화원, 2006; 현문필, 「출토유물을 통한 元堂寺址의 조성시기와 성격 고찰」, 『제주도 연구』 33집, 제주학회, 2010.

21) 金禧庚, 「濟州 佛塔寺 五層石塔을 찾아서」, 『美術史學研究』 228·229호, 한국미술사학회, 2001, 147-148쪽.

된 낮은 기단부와 5층의 탑신부로 구성되었으며, 상륜부는 일부만 남아 있지만 원래는 擦柱를 세워 寶珠와 龍車 등을 결구했던 것으로 보인다(도 11).

석탑 기단부는 단층기단으로 낮게 마련되었는데, 하대석 상면은 외곽부를 경사지게 다듬어 다소나마 장식적인 기교로 치석되었다. 그리고 그 위에 올린 기단부 面石은 한 돌로 마련되었는데, 후면을 제외한 정면과 양측면의 3면은 외곽부에 일정한 너비의 돌을대를 마련하여 사각형으로 구획한 후, 그 안에 眼象을 새겼다(도 12). 안상의 한 가운데에는 음각으로 花紋形 紋樣을 추가적으로 장식하였다. 이와 같이 안상 안에 花紋을 추가적으로 장식하는 표현 기법은 고려시대 석조미술에 많이 적용되었다. 그런데 원당사지 오층석탑의 안상은 음각으로만 표현되는 다른 석조미술품의 안상과는 달리 볼륨감있게 陽刻함으로써 面石의 표면에서 상당히 돋보이게 하였다. 이러한 점은 화강암에 비하여 치석하기 쉬운 玄武巖이라는 재질의 특수성보다는 面石部에서 안상을 돋보이게 장식하려는 석공의 세심한 기교로 보인다. 그리고 면석 위에 놓인 甲石은 하면에 별도의 附椽을 표현하지 않았으며, 상면은 외곽부를 일정한 너비로 구획하여 약간 경사지게 다듬어 하대석과 마찬가지로의 치석 기법을 적용하였다.²²⁾ 또한 甲石 上面은 약간 경사지게 다듬고 낮은 단이 형성되도록 하여 넓은 탑신괴임처럼 보이도록 치석했다. 이와 같이 갑석 하부에 일반적으로 마련되는 附椽을 표현하지 않았으며, 그 上面에 1층 塔身을 받치는 괴임대가 표현되지 않은 점 등은 간략화의 경향이 진전된 시기에 이



<도 12> 元堂寺址 五層石塔 기단부



<도 13> 元堂寺址 五層石塔 1층 탑신부

22) 현재 甲石의 上面과 下面의 치석 수법으로 보아 上下가 뒤집혀진 것으로 추정된다.

석탑이 건립되었음을 시사한다.

탑신부의 탑신석과 옥개석은 표면에 별다른 장식없이 평범한 치석 수법을 보이고 있다. 다만 1층 탑신 정면의 한가운데에 사각형 龕室을 마련했는데, 그 규모로 보아 소형 佛像이나 舍利具를 봉안하기 위한 시설로 보인다. 그리고 감실 입구 외곽에 일정한 너비의 돌을대가 마련된 것으로 보아 처음에는 별도의 감실 막음장치가 있었는데, 어느 시기에 결실된 것으로 추정된다(도 13). 그리고 각 층의 탑신석은 隅柱가 표현되지 않은 石柱形 기둥처럼 치석했는데, 각 층의 탑신이 상부로 올라가면서 좁게 다듬어 배흘림 수법이 약하게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석탑의 전체적인 외관을 결정짓는 옥개석은 각 층의 규모는 다르지만 동일한 양식으로 치석되었다. 다만 1층 옥개석이 다른 층에 비하여 다소 넓고, 5층 옥개석이 4층에 비하여 체감 비율이 상대적으로 커서 약간 불균형적인 모습을 보이기는 하지만 오층석탑의 전체적인 비례와 외관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옥개석은 落水面이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합각부의 처마를 살짝 치켜 올리면서 약간의 反轉을 주어, 두툼한 처마면이 줄 수 있는 둔중한 이미지를 최대한 완화시켜 경쾌한 인상을 주도록 한 점은 돋보이는 치석 수법이라 할 수 있다. 옥개석 상면의 합각부 모서리에는 일정한 너비의 돌을대를 처마부까지 길게 마련하였는데, 옥개석이 기본적으로 목조건축물의 지붕부를 번안했음을 보여주고 있다(도 14, 15). 그리고 옥개석의 하부 모서리에는 風鐸을 달았던 흔적이 남아 있어, 원래는 모서리마다 풍탁이 달렸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 석탑에서 일반적으로 표현되는 옥개석의 상하부에 받침이나 괴임단을 마련하지 않은 측면, 두툼한 처마면의 처리, 어색한 합각



<도 14> 元堂寺址 五層石塔 1층 옥개석



<도 15> 元堂寺址 五層石塔 2층 옥개석

부의 반전 기법 등은 이 석탑의 건립 시기가 다소 하강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원당사지 오층석탑은 상층으로 올라가면서 일정한 체감을 주어 전체적으로 안정된 외관을 형성하도록 했으며, 각부의 구성 수법이 고려시대의 전형적인 석탑 양식과 상통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석탑을 전문적으로 설계 제작한 장인에 의하여 건립되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나아가 원당사지 오층석탑을 설계 또는 시공한 석공의 국적을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원당사지 오층석탑은 규모가 상당히 크지는 않지만 각각의 부재를 동일적으로 마련하여 결구하였으며, 낮고 간략한 기단부의 결구 수법, 별도의 받침이나 괴임이 표현되지 않은 갑석과 옥개석의 치석 수법, 약한 배흘림수법의 석주형으로 다듬은 탑신, 낙수면은 완만한 경사를 보이면서 처마면을 두툼하게 처리한 옥개석, 옥개석의 어색한 반전 수법 등이 주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들로 보아 원당사지 오층석탑은 고려후기에 들어와 원당사가 중창될 때 참여한 匠人이 육지에 건립되어 있는 當代의 고려시대 석탑을 참고하여 설계한 다음, 제주 지역에만 생산되는 현무암을 채석하여 현재와 같은 양식으로 시공한 것으로 보인다.

3. 尊者庵과 泰岩寺址 浮屠

尊者庵은 한라산 중턱에 위치하고 있는데, 『耽羅志』에 의하면 원래는 이곳에 靈室이 있었다고 한다. 金綴(1577~1625年)의 「遊漢拏山記」에 의하면, 당시 존자암은 법당이 띠로 지붕을 얹은 판잣집으로 외국 승려 修淨이라는 스님이 머물고 있었다고 한다. 修淨은 존자암을 방문한 金綴를 백록담과 6~7리 정도 떨어진 靈室까지 안내했다.²³⁾ 또한 李慶億(1620~1673年)도 존자암을 방문하여 詩를 남겼는데, 시의 내용 중에 천년을 지나 온 외로운 탑이 존자암에 홀로 서있다고 했다.²⁴⁾ 이외에도 여러 사서

23) 李元鎮, 『耽羅志』, 濟州, 佛宇.

24) 李慶億은 1650년 안핵어사로 제주도에 왔다가 尊者庵에 올라 시를 지었는데, 시의 내용 중에 ‘尊者知名寺 荒涼半舊墟 千年孤塔在…’라는 표현이 있다(金尙憲, 『南槎錄』, 佛宇, 尊者庵). 여기서 ‘千年’은 오래되었다는 의미의 상투적인 표현일

에 존자암이 靈室과 함께 등장하고 있어, 조선후기 한라산에 소재한 사찰로서 상당한 명성이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한편 존자암 발굴 조사 시에 건물지, 추정 塔址, 명문와편, 자기편 등 많은 유적과 유물들이 출토되었다.²⁵⁾ 이러한 유적과 유물들로 보아 존자암은 늦어도 고려후기에는 창건된 것으로 밝혀졌다.²⁶⁾

현재 존자암에는 승려의 사리를 봉안하기 위한 석조미술로 추정되는 부도 1기가 가람의 북편으로 형성된 능선 상에 위치하고 있다. 이 부도는 제주지역에만 있는 현무암으로 치석되었다. 부도는 모든 부재의 평면이 원형을 이루고 있으며, 밑에서부터 2단의 臺石式 기단부, 圓球形 塔身, 寶蓋形의 屋蓋石과 寶珠가 순서대로 결구되어 있다(도 16). 현재 지대석은 파손이 심한 상태로 원형은 알 수 없으며, 그 하부에는 높은 하중의 부도를 견고하게 지탱하기 위하여 적심이 마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위의 대석은 원형의 맷돌처럼 치석되어 圓球形 탑신을 받치고 있는데, 상면 한가운데에는 원형 돌을대를 마련하여 그 안에舍利를 봉안하기 위한 圓孔을 시공하였다. 圓球形 탑신 하부에는 별도의 홈을 시공하여 舍利孔이 안쪽으로 맞물리면서 견고하게 고정되도록 하여 상당히 정교한 치석 기법을 보여주고 있다²⁷⁾(도 17, 18).

이와 같이 조선후기 조성된 대부분의 부도는 존자암 부도처럼 대석 상면이나 탑신 하부에 원공을 시공하여 유골이나 사리를 봉안하였다. 탑신은 가운데를 약간 볼록한 형태로 치석하였으며, 탑신 전체 높이와 좌우 너비를 적절한 비율로 다듬어 전형적인 원구형을 이루도록 했다. 그

것이다. 사찰에 있는 탑은 보는 이의 감정 상태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는데, ‘孤塔’은 탑 인근에 다른 조형물 없이 비교적 넓은 공간에 홀로 서 있었던 상태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孤塔’이 당시 가람의 中庭 空間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佛塔인지, 오늘날까지 유존되고 있는 浮屠를 지칭하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이 기록과 현존하는 부도의 건립 시기가 상통하고 있는 점은 주목된다.

25) 濟州大學校 博物館, 『尊者庵址 發掘調査中間報告』, 1993; 제주대학교 박물관, 『尊者庵址』, 1996.

26) 현문필, 「존자암의 창건에 관한 고찰」, 『제주도연구』 35집, 제주학회, 2011, 147-151쪽.

27) 濟州大學校 博物館, 『尊者庵址 發掘調査中間報告』, 1993, 42-44쪽.



<도 16>
尊者庵 浮屠



<도 17>
尊者庵 浮屠 圖面²⁸⁾



<도 18> 尊者庵 浮屠 基壇部²⁹⁾

리고 옥개는 처마면을 두툼하게 마련하고 표면에 별다른 장식을 하지 않아 佛頭 위의 寶蓋石처럼 다듬었으며, 옥개 상부에는 반원형의 큼직한 寶珠를 올려 마무리하였다. 존자암 부도는 세부적으로 간략화 된 치석과 결구 수법이 적용되었지만 전체적으로 각 부재들 간에 비율이 잘 어울리고 있어 전형적인 원구형 부도로서 안정된 인상을 주고 있다. 이러한 점은 이 부도가 당시 육지에서 성행한 양식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상당히 우수한 석공에 의하여 설계 시공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존자암 부도는 조선 후기 부도들과 양식적으로 친연성을 보이고 있는데, 치석 수법과 양식으로 보아 17~18세기 대에 건립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泰岩寺址는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에 소재하고 있는데, 이곳에도 현무암으로 제작된 2기의 부도재가 남아 있다. 현재 泰岩寺는 사찰 연혁과 관련된 기록이 거의 없어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사지에서 기와편과 청자편, 분청편과 백자편 등이 출토되었다.³⁰⁾ 이러한 출토 유물들로 보아 태암사가 늦어도 고려시대에는 창건되어 조선시대까지 꾸준하게 법당이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부도는³¹⁾ 사지 입구에 위치하고 있는데, 옥개석과 상륜부는 결실된 상태이다. 그래서인지

28) 앞의 책, 44쪽.

29) 국립제주박물관, 『濟州의 歷史와 文化』, 2001, 127쪽.

30) 姜彰彦, 「濟州道の 佛蹟」, 『耽羅文化』 12,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1992, 163쪽.

31) 현재 높이 46cm, 탑신 상면 지름 26cm이다.



<도 19> 泰岩寺址 浮屠(向左)



<도 20> 泰岩寺址 浮屠(向右)

石鼓로도 소개되었지만 전체적인 치석 수법과 양식으로 보아 부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모두 대석과 圓球形 탐신이 한 돌로 제작되었으며, 동일한 양식을 보이고 있어 비슷한 시기에 건립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도의 주인공이 동일인인지 각각 다른 승려인지 알 수 없다. 부도의 대석은 평면 사각형으로 간략하게 마련되었으며, 원구형 탐신은 상면에 별도의 낮은 받침대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원래는 屋蓋形의 蓋石이 결구되었음을 알 수 있다(도 19, 20). 태암사지 부도는 규모가 작고, 치석 수법과 양식 등이 조선후기의 부도들과 친연성을 보이고 있다.

4. 東資福과 西資福 石佛

제주시 건입동과 용담동에는 현무암으로 조각된 2구의 조각상이 남아 있는데, 거의 동일한 규모와 양식으로 일정한 거리를 두고 마치 한 쌍처럼 마주보고 서 있다. 그런데 두 조각상 중에서 건입동의 萬壽寺址는 東資福(彌勒佛, 福神彌勒, 資福神, 資福彌勒), 용담동의 海輪寺址는 西資福으로 오래전부터 불리고 있다.³²⁾ 이와 같이 두 조각상은 모두 福神 彌勒으로 불리며, 彌勒佛로 전해지고 있다(도 21, 23). 불가에서 미륵불은 석가모니 부처를 이어 먼 미래에 나타나 그때까지 구제되지 못한 衆生들을 구제한다는 부처이다. 그래서 미륵불은 兜率天의 칠보대 안에 있는 摩尼殿 위의 師子床에 앉아 수행하다가, 세상 곳곳이 금과 은으로 쌓이

32) 현재 西資福 바로 옆에 서있는 石造像은 석불 또는 남자성기 등으로 불리고 있는데, 화강암으로 조성된 것으로 보아 육지에서 넘어온 것이며, 마모가 심하게 되었지만 묘역에 배치되는 童子石像 또는 石獸像임을 알 수 있다.

면 婆羅門家에 下生하여, 龍華樹 아래에서 성불하고, 3회의 설법을 통하여 모든 중생들을 구제한다고 한다. 이러한 미륵불은 ‘Maitreya’의 漢譯으로 ‘慈氏’ 또는 ‘慈尊’이라고 했다. 불경에서의 미륵불의 별칭은 ‘資福’ 또는 ‘資福神’으로 불리는 두 석상의 명칭과 음운학적으로 그 의미가 상당부분 상통하고 있다. 두 석상은 미래에 福을 가져다주는 미륵불이라는 의미에서 慈福 또는 資福, 慈福神 또는 資福神으로 명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두 조각상이 미륵불을 의미하는 資福 또는 資福神으로 불리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두 조각상은 조선시대 왕릉이나 사대부가의 묘역에 일반적으로 세워졌던 文人石들과 양식적으로 상당히 닮아 있다. 특히 신체에 표현된 옷주름과 손가락의 형식화된 표현 기법 등은 강한 친연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신체와 손발의 비례가 어울리지 않아 괴체화된 인상을 주고 있는 점과 조각 기법이 다소 사실적이지 못한 측면도 상당히 닮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두 조각상은 사찰에서의 부처상이기 보다는 왕릉이나 사대부가의 묘역에 세워져 있는 석인상에 가까운 모습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많지는 않지만 서울 약사사 석불, 용인 마북리 석불, 안성 아양동 석불 등 조선후기에 들어와 문인석과 닮은 석불들이 서울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조성되기도 했다. 이 조각상들은 불상으로 조각되었지만 전체적인 모습이나 양식은 유교적인 성격이 강한 문인석들과 강한 친연성을 보이고 있다. 한편 복신미륵으로 불리는 두 조각상은 과장되게 표현된 얼굴의 눈과 코, 圓形의 冠帽를 쓰고 있는 표현 기법 등은 제주지역에서 성행한 돌하르방과도 상당히 유사한 조각 기법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두 조각상은 전체적인 형상이 무덤에 세워졌던 文人石을 대형으로 조각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제주지역에서 성행한 돌하르방이 풍선처럼 확대된 것 같은 인상을 주기도 한다(도 21~24).

그리고 두 조각상은 사찰에서 禮佛의 대상으로 조성된 것은 분명한데, 전체적인 모습이 예전부터 내려온 전형적인 石佛이라기보다는 주로 민간신앙의 대상으로 야외에 조각되는 民佛에 가까운 형상으로 조각된 점이 특징적이다. 그래서 두 조각상은 토속적인 요소가 강하게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두 조각상은 사실적인 신체 비례보다는 괴체화된 신체의 비율, 정교한 표현보다 간략화 된 옷주름, 전체적인 형상이 불상의

32相 80種好에 어울리지 않고 있으며, 머리 위에 寶冠이 아닌 병거지형의 冠帽 등 다소 이색적인 표현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각상에서 가장 중요한 상호의 표현도 근엄하고 자비스러운 인상보다는 친숙하고 인간적인 돌하르방의 얼굴 모습과 상당히 닮았다(도 25, 27). 이러한 것으로 보아 두 조각상은 當代의 불상 양식에 대한 전문적인 안목과 식견을 갖춘 육지에서 건너온 장인에 의하여 조각되었다기보다는 당시 불상 양식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인식이 있었으며, 오랫동안 제주도에서 살았던 능숙한 장인이 지역적 특성을 나름대로 잘 반영하여 조각한 佛像으로 추정된다.

현재 두 조각상이 서있는 萬壽寺址와 海輪寺址의 연혁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은 없다. 다만 『新增東國輿地勝覽』에 의하면, 해륜사는 西資福으로 濟州城 서쪽 大甕浦 입구에 있으며, 만수사는 東資福으로 健入浦 동쪽 둑 위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³³⁾ 이러한 기록으로 보아 두 사찰이 늦어도 조선초기에는 창건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두 사찰이 李元鎮의 『耽羅志』에 수록되어 있는 것³⁴⁾으로 보아 조선후기에도 법당이 유지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아직까지 두 사지에 대한 정밀 발굴 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지금도 해륜사에서 많은 기와편들이 출토되고 있는데, 기와의 제작 기법과 문양 등이 古式 수법으로 조선시대 기록들과 상통하고 있는 점은 주목된다. 이와 같이 두 사찰은 조선시대 억불숭유 정책 기조 속에서도 상당히 오랫동안 법당이 지속되었다. 그런데 濟州牧使 李衡祥(1653~1733年)이 기록한 『南宦博物』에 만수사와 해륜사를 헐어서 公廩로 옮겨 짓도록 했다는 내용³⁵⁾이 있는 것으로 보아 1702年에서 1703年 사이에 두 사찰이 廢寺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만수사와 해륜사는 17세기 말까지 法燈이 유지되었던

33) 『新增東國輿地勝覽』 卷38, 濟州牧, 佛宇. ‘海輪寺 一名西資福在州西獨浦口 萬壽寺 一名東資福在健入浦東岸’

34) 李元鎮, 『耽羅志』, 濟州, 佛宇. ‘海輪寺 一名西資福在州西大甕浦口 萬壽寺 一名東資福在健入浦東岸上’

35) 『南宦博物』은 李衡祥이 1702년 6월 濟州牧使로 부임하여 제주에서 보고 느낀 것을 기록한 책이다. 그는 재임 중에 신당 129개소를 없애고, 무당 185명을 농사 짓게 하였다고 한다.

사찰임을 알 수 있다.

두 조각상의 구체적인 조성 시기를 파악하는 것은 福神彌勒의 역사적 위상뿐만 아니라 제주지역의 불교문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준다고 할 수 있다. 두 조각상은 관련 기록과 조각 기법 등으로 보아 동시기에 조성된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과연 언제 조성되었을까? 이와 관련하여 먼저 두 사찰에 대한 가장 오래된 사료인 『新增東國輿地勝覽』과 『耽羅志』에는 해륜사가 일명 西資福, 만수사가 일명 東資福으로 불린다고는 기록되어 있지만 사찰 내 조각상의 유무는 알 수 없다. 다만 두 사료에 수록된 西資福과 東資福이 미륵불로 불린 조각상이 가능성은 높지만 확정적인 근거는 없는 상태이다. 두 사료의 기록은 [海輪寺=西資福], [萬壽寺=東資福]이라는 등식은 성립시켜 주지만, 오늘날 남아있는 [용담동의 海輪寺址 福神彌勒 彫刻像=西資福], [건입동의 萬壽寺址 福神彌勒 彫刻像=東資福]이라는 등식의 성립 여부는 불분명하다. 그리고 朝鮮後期 李衡祥에 의하여 만수사와 해륜사가 훼손될 때 조각상이 조성되어 있었는가 하는 부분과 사찰이 폐사될 때 조각상도 파손되었는가, 아니면 그대로 두었는가 하는 점도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두 사찰과 관련된 기록들이 두 조각상의 조성 시기를 파악하는데 정황적 증거는 될 수 있지만 실증적 근거는 될 수는 없는 상태이다. 한편 제주지역에는 두 조각상과 양식적으로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는 편년 자료가 없으며, 고려와 조선시대 조성된 불상도 남아있지 않아 불상 양식의 변천 양상을 파악하기도 힘든 상태이다. 따라서 두 조각상의 조성 시기는 조각 기법과 양식 등을 통하여 추정할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전국에 걸쳐 福을 비는 資福寺가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 조선 태종대(1400~1418년)에는 전국의 사찰을 7宗으로 구분하여 지역마다 중요 사찰을 자복사로 지정하였다.³⁶⁾ 당시 자복사는 행정 단위를 고려하여 국가에서 지정하였는데, 국가가 지정한 자복사는 중요 의례의 실현 장소이자 지역 주민들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한 범회를 거행하는 사찰로서의 기능도 수행하였다.³⁷⁾ 이와 관련하여 조선시대 제주

36) 『太宗實錄』 卷14, 太宗 7年 12月 2日(辛巳).

지역에는 국가가 공식적으로 지정한 자복사는 없었다. 그런데 두 사찰이 東資福과 西資福으로 불리는 등 여러 정황으로 보아 국가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지정된 제주지역의 자복사는 아니었지만, 조선시대 들어와 제주지역의 중요 사찰로 인식되어 육지의 자복사처럼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두 사찰이 제주지역에서 만큼은 국가에 의하여 지정된 육지의 資福寺에 상응하는 사찰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두 사찰이 福을 가져다주는 사찰이라는 의미에서 ‘資福’이라는 별칭이 붙여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동쪽과 서쪽에 위치한 資福寺라는 의미로 東資福과 西資福이라는 별칭이 부여되었으며, 두 조각상이 사찰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불상이었기 때문에 별칭 그 자체가 사찰과 불상을 동시에 지칭하는 명칭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조선시대 들어와 抑佛崇儒 정책 기조가 기본적으로 유지되었지만 세종대 집권 말기와 세조대(1455~1468年)에는 불교계가 일시적으로 부흥하면서 왕실이나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불교 지원 정책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많은 佛事가 시행되었다. 또한 지방의 유력한 계층들도 불교를 믿으면서 여러 불사를 후원하였다.³⁸⁾ 제주지역도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에 따라 불교가 중심적인 종교로 자리 잡으면서 신앙 활동을 위한 여러 불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선초기에는 坡州 龍尾里 磨崖二佛立像(1471年), 安養 望海庵 石佛立像(1479年)³⁹⁾ 등 大形 石佛들이 많이 조성되었다.⁴⁰⁾ 현재 동자복과 서자복으로 불리는 두 조각상은 佛身 아래에 별도의 받침대를 마련하여, 그 위에 한 돌로 조성되었다. 두 조

37) 한기문, 「고려시대 資福寺의 성립과 존재 양상」, 『民族文化論叢』 제49집,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1, 310-323쪽.

38) 李逢春, 「조선전기 崇佛主와 흥불사업」, 『佛敎學報』 제38집, 불교문화연구원, 2001, 45쪽.

嚴基杓, 「朝鮮 世祖代의 佛敎美術 研究」, 『한국학연구』 제26호,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2, 463-506쪽.

39) 安養 望海庵 石佛立像은 寶冠 하부에 銘文이 음각되었는데, ‘成化十五年四月日造成’이라고 새겨져 있다.

40) 제주도의 동자복과 서자복은 양식적으로 이천 어석리 미륵불이나 익산 고도리 석불 등과도 친연성이 있다.

각상은 그 규모로 보아 육지에서 화강암으로 조성되었다 해도 상당히 큰 대형 석불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육지가 아닌 제주지역에서 동자복과 서자복 규모의 조각상을 조성하기 위한 대형 玄武巖은 제주지역에서 採石하기도 상당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각하기도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 두 조각상은 당시 제주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력한 계층들을 비롯하여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후원하여 조성된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제주지역의 다양한 상황과 조선초기 불교계의 동향, 東資福과 西資福의 조각 기법과 양식 등 여러 요소들을 고려할 때, 두 조각상은 제주지역에서 불교가 중심적인 종교로 자리 잡았던 조선초기인 15세기대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⁴¹⁾



<도 21>
東資福 正面



<도 22>
東資福 側面



<도 23>
西資福 正面



<도 24>
西資福 後面



<도 25>
東資福 相好



<도 26>
東資福 手印



<도 27>
西資福 相好



<도 28>
西資福 手印

41) 정성권, 「제주도 돌하르방의 기원과 전개」, 『耽羅文化』 제50호, 제주대학교 탐라 문화연구소, 2015, 205-242쪽.

Ⅲ. 石造美術의 미술사적 의의

현재 제주지역에 전해지고 있는 불교 석조미술로는 수정사에서 출토된 청석탑, 원당사지 오층석탑, 존자암과 태암사지에 남아있는 3기의 부도, 東資福과 西資福으로 불리는 석불 2구이다. 한편 李慶億의 詩에 의하면 존자암에 孤塔이 있다고 하였으며,⁴²⁾ 발굴 시 탑지가 확인된 것으로 보아 현존하는 부도 외에 또 다른 탑이 존자암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주시에 塔洞이라는 지명이 있는데, 오늘날 사찰은 없어졌지만 고찰 안에 탑이 건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지명으로 보여 또 다른 탑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제주지역도 육지와 마찬가지로 불교가 전래된 이후 때에 따라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불교가 지속적으로 신앙되면서 예불의 주요 대상인 石塔과 石佛을 비롯하여 여러 유형의 불교미술품이 조성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현재 제주지역에 남아있는 불교 석조미술품은 한반도에 불교가 전래된 이후 그 문화가 성행한 것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편이다. 그 이유는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지리적인 특징, 조선초기의 抑佛崇儒政策, 조선후기 제주지역에 있었던 대대적인 毀佛政策 등으로 이해된다.

한편 현재 제주지역에서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의 불교 관련 유적이나 유물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불교가 전래되지 않았거나 신앙되지 않았다고 속단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최근 제주지역에서 조사되고 있는 유적 유물들로 보아 오래전부터 육지와 많은 교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삼국시대 이후에는 제주지역과 육지 간에 직접적인 접촉이나 교류 사실을 알 수 있는 여러 기록이 『三國史記』에 전해지고 있다. 제주지역이 백제와 지속적인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백제의 불교가 제주지역으로 전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백제가 聖王代에 멀리 일본에까지 불교를 전해주었던 것으로 보아 그 중간에 있었던 제주지역에 불교가 전래되었을 가능성은 아주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통일신라시대에는 항해술의 발달로 여러 지역과 많은 교류가 이루어졌고, 동아시아의 모든 지역에서 불교가 중심

42) 金尙憲, 『南槎錄』, 佛宇, 尊者庵.

적인 종교로 자리 잡고 있었다. 당시 제주지역에 살았던 사람들도 이러한 사실을 모를 리 없었을 것이고, 다양한 루트를 통하여 제주지역에도 불교가 전래되어 신앙되었을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통일신라시대 제주지역에서 불교가 신앙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당시 육지처럼 규모가 큰 전형적인 사찰 가람이 건립되지 않았거나, 관련 유적이나 유물이 유실 또는 파괴되었거나, 아직까지 직접적인 증거 자료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리고 고려시대에는 불교가 크게 성행하면서 전국적으로 많은 佛事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고려시대 들어와 제주지역에도 신앙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전형적인 사찰 가람이 여러 곳에 조성되었을 것이다. 현재 제주지역에서 확인되고 있는 불교 관련 유적 유물들은 고려시대 들어와 제주지역의 여러 곳에 사찰이 건립되어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신앙했음을 알려주고 있다. 특히 고려후기에는 제주지역이 중요한 곳으로 부각되면서 유력한 승려들이 활동하기도 했다. 당시 승려들은 제주지역에서 불교를 확산시키는데 크게 기여했을 것이다. 고려시대 제주지역의 불교문화 양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물이 水精寺址 靑石塔과 元堂寺址 五層石塔이다. 그런데 두 석탑은 제주지역뿐만 아니라 한국 석탑사에서 학술적으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중에서 수정사지 청석탑은 현존하는 제주지역의 佛塔 중에서 건립 시기가 가장 빠른 塔婆라는 점에서 미술사적으로 의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靑石塔은 현존하는 수량이 많지 않은 편으로 고급스럽고 품격 있는 탑으로 인식했던 고려시대 석탑의 한 유형이다.⁴³⁾ 그런데 점관암이 없었던 제주지역까지 청석탑이 건립되었다는 점에서 수정사지 청석탑은 고려시대 불교문화의 전국적인 확대 양상을 그대로 시사해 주고 있다. 또한 제주지역이 육지와 불교문화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려준다. 특히 한국 불교사 측면에서 水精寺址 靑石塔이 주목되는 것은 탑신석 표면에 범자로 眞言 陀羅尼를 새겼다는 점이다. 범자가 새겨진 탑재는 총 18石인데, 하층부에 활용된 비교적 큰 탑신의 표면에는 좌우

43) 高麗時代에는 靑石이 고급 부재로 인식되어 최고 권력층들의 石棺의 재료로도 많이 활용되었다.



<도 29>
原州 普門寺 青石塔



<도 30>
寧越 武陵里 青石塔



<도 31>
襄陽 道寂寺址 青石塔材

에 2字, 상층부에 활용된 작은 塔身의 표면에는 1字씩 새겼다. 현재 고려시대 청석탑 중에서 범자로 진언 다라니를 새긴 예는 原州 普門寺 青石塔, 寧越 武陵里 青石塔, 襄陽 道寂寺址 青石塔材⁴⁴⁾ 등에서 확인되는 상당히 드문 사례에 속한다(도 29~31). 수정사지 청석탑의 탑신에 새겨진 범자체는 고려와 조선시대 일반적으로 쓰인 悉曇體로 原州 普門寺 青石塔과 상당히 유사하다. 그런데 결실된 탑신 부재가 많아 어떤 진언 다라니를 새겼는지는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다만 고려시대 들어와 遼와 元나라 불교의 영향으로 密敎가 유행하면서 진언 다라니가 성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수정사지 청석탑도 신앙과 예불의 대상으로 진언 다라니를 새긴 고급스러운 청석탑을 조성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수정사지 청석탑에 새겨진 진언 다라니는 한국 불교사에서 고려시대 불교의 密敎的인 요소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는 점에서 미술사적으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 고대 석탑 건립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예술적인 측면도 있지만 구조적인 측면에서 상부의 육중한 하중을 하부의 부재들이 잘 받치고 견딜 수 있도록 기술적이고 과학적으로 치석 결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부에 결구되는 부재는 가능하면 대형 석재를 활용하며, 통돌로 치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특히 탑신석은 옥개석보다 너비가 좁게 마련

44) 高正龍·嚴基杓, 「襄陽 道寂寺址의 史蹟과 青石塔」, 『博物館誌』 第20號, 江原大學校 中央博物館, 2014, 19-38쪽.

되며, 상부에 놓이는 육중한 하중을 견디어야 때문에 작은 규모의 석탑일수록 일반적으로 한 돌로 치석 결구했다. 그래서 고려시대 건립된 청석탑의 탑신은 한 돌로 치석 결구되었다. 그런데 수정사지 청석탑은 탑신에 활용된 부재들을 板石形으로 치석하여, 각 층의 각 면마다 별도의 1매씩 마련하여 총 4매의 판석형 부재가 결구되어 한 층의 탑신을 이루도록 했다. 즉, 수정사지 청석탑은 점판암이라는 재료상의 난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탑신을 통돌이 아닌 여러 매의 석재가 결구되어 한 층을 이루도록 했다. 이와 같이 수정사지 청석탑은 탑신부의 육중한 하중으로 구조상 상당히 어렵고, 설계상 적용하기 힘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기단부를 架構式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층의 탑신은 여러 매의 판석형 부재를 결구하여 고층으로 올렸다. 장인이 이러한 조영 기법을 적용한 것은 청석탑을 육지에서 설계 시공한 이후 바다를 건너 제주도까지 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고려도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수정사지 청석탑이 상당히 우수한 장인에 의하여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元堂寺址 五層石塔이 한국 석탑사에서 갖는 미술사적 의의는 재료의 특이성을 가장 먼저 들 수 있다. 한국은 불교가 전래된 이후 수천기의 石塔이 건립되었는데, 대부분 화강암이라는 석재가 사용되었다. 그런데 원당사지 오층석탑은 제주지역만 있는 현무암으로 건립되어 제주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고려시대 석탑이다.⁴⁵⁾ 제주지역은 지리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많지는 않지만 현무암이 석조미술의 주재료였으며, 육지는 화강암이 석조미술의 주재료였다. 현무암은 가벼워 옮기는 것은 쉽지만 대형의 原石을 채석하기 어렵고, 표면에 기공이 많으며, 조직이 단단하지 않아 치석 시 파손되기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현무암은 화강암에 비하여 정교하고 깔끔하게 치석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재료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원당사지 오층석탑의 치석 수법과 양식이 간략화의 경향을 보이게 된 것으로도 추정된다. 한편 원당사지 오층석탑은 관련 기록과 여러 정황으로 보아 고려후기 元나라와의 밀접

45) 현재 남양주 수진사에도 현무암으로 조성된 석탑이 있는데, 오래전 제주도에서 이 건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건립 시기는 조선후기 이후로 추정된다.

한 관련 속에서 건립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원나라는 불교를 크게 신봉했기 때문에 다양한 유형의 불탑이 건립되었는데, 돌을 활용한 石幢形塔, 벽돌을 활용한 密檐式塔이나 喇嘛塔이 주류를 이루었다.⁴⁶⁾ 현재 麻谷寺址 五層石塔의 경우 전체적인 외관은 고려 석탑 양식을 보이고 있지만 기단부와 탑신부 등에 원나라 탑과 기법이나 문양이 적용되었고, 相輪部는 원나라의 라마탑 양식을 거의 그대로 채용하였다. 敬天寺址 10層石塔도 원나라 탑과의 기법과 양식이 상당부분 적용되었다. 그런데 원당사지 오층석탑은 원나라 황실과의 관계 속에서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불구하고, 석탑의 전체적인 외관을 비롯하여 세부적인 치석 수법과 양식 등에서 원나라 탑과의 기법이나 양식적 요소를 거의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원당사지 오층석탑은 고려 후기 간략화의 경향이 진전된 전형적인 고려 석탑 양식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 원당사지 오층석탑은 육지의 고려시대 석탑을 모본으로 하여 건립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당사와 오층석탑이 원나라 지배기에 원나라 황실의 발원과 후원에 의하여 건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건립 주체는 고려 장인들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 들어와 제주지역의 불교는 거시적으로는 육지와 동일한 쇠퇴와 발전 과정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미시적으로는 육지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였다. 조선초기에 들어와 육지에서 불교계가 전반적으로 위축되면서 제주지역의 중요 사찰이었던 法華寺와 水精寺 등 일부 사찰이 위축되기도 했지만, 육지의 불교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많은 사찰들이 법등을 이어가면서 佛事가 진행되었다. 당시 불교는 제주지역의 민간신앙과 습합되면서 중심적인 신앙으로 자리 잡아 나갔다. 그런데 조선 후기에 들어와 부흥기를 맞이했던 육지의 불교와는 달리 제주지역은 대대적인 훼손정책 등으로 오히려 불교계가 크게 위축되었다. 그래서 조선 후기 제주지역은 육지에 비하여 불교문화가 성행하지 못했다. 이러한 점은 오늘날 제주지역에서 조선시대의 불교미술품이 육지에 비하여 상당히 적게 확인되고 있는 배경이 된 것으로 이해된다.

현재 제주지역에 유존되고 있는 조선시대의 석조미술로는 東資福과

46) 張馭賓, 『中國塔』, 山西人民出版社, 2000, 44-48쪽.

西資福으로 불리는 2구의 조각상, 尊者庵과 泰岩寺址 부도 등이다. 먼저 2구의 조각상은 기본적으로 사찰에서 순수한 예불의 대상으로 조성되었지만 제주도라는 지역적인 특성이 반영되어 독특하게 조각되었다. 또한 두 조각상은 彌勒佛로서 신앙의 대상이었지만 동시에 마을의 守護神像이자 福을 가져다주는 民佛의 性格의 조각상으로도 인식되었다. 그래서 福神彌勒으로도 불렀는데, 이러한 측면은 제주지역의 불교가 재래의 민간신앙적인 요소 등을 원만하게 수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제주지역의 불교문화는 순수한 불교적인 측면도 있지만 제주지역만의 지리적인 특성이 반영되어, 육지보다 제주도의 재래의 민간신앙과 잘 습합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제주지역 불교문화의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福神彌勒으로 불리는 두 조각상이라 할 수 있다. 한국 불교는 진리와 깨달음을 얻어 成佛하고자 하는 불교 본래의 목적과 함께 재래의 다양한 민간신앙을 흡수하여 佛敎化시킨 측면이 많기 때문에 通佛敎라고 칭한다.⁴⁷⁾ 그래서 한국불교는 민간적인 요소가 강한 辟邪나 祈福 信仰의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현재 東資福과 西資福으로 불리는 福信彌勒은 한국 불교의 특성인 通佛敎의 양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尊者庵과 泰岩寺址 浮屠는 재료 자체가 현무암으로 제작되어 원당사지 오층석탑과 함께 제주지역의 지리적인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석조미술품이라 할 수 있다. 존자암 부도는 관련 기록이나 명문이 남아있지 않아 그 성격이나 주인공은 알 수 없지만, 僧侶의 遺骨이나 舍利를 봉안했던 조형물로 조선후기 존자암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유력한 승려의 墓塔으로 추정된다. 이 부도는 치석 수법과 양식 등으로 보아 17~18세기 대에 건립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태암사지 부도는 간략한 양식을 취하고 있는데, 조선후기 태암사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승려의 墓塔으로 추정된다. 현재 존자암과 태암사지 부도는 치석 수법이나 양식이 육지에서 성행한 부도 양식과 강한 친연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 조선시대에 제주지역이 섬이었지만 큰 시기적인 편차 없이 육지에서 성행한 불교문화나 조형물의 양식이 곧바로 전래되었음

47) 洪潤植, 『韓國佛敎史의 研究』, 敎文社, 1998, 356-357쪽.

을 알 수 있다.

한편 제주지역의 독특한 불교문화와 관련하여 金尙憲의 『南槎錄』에 의하면, 날이 저물어 투숙할 곳을 찾다가 都近川에 水精寺가 있다는 말을 듣고 찾았는데, 집이 누추하여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하면서 거기에 있는 승려들은 모두 처자를 거느리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金尙憲은 제주에 比丘尼가 없으며, 대개의 경우 절에서 처자를 거느리고 있는데, 尊者庵에는 아내가 없는 승려가 있다고 특기할만한 사실처럼 기록하였다.⁴⁸⁾ 이러한 내용은 조선시대 육지와 구별되는 제주지역 불교문화의 특징을 전해주고 있다. 제주지역의 승려들은 처자를 거느리고 승려 생활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모습은 당시 육지에서 보기 드문 제주지역만의 독특한 불교문화였음을 알 수 있다.

IV. 결론

오늘날 제주지역은 육지와 비교하면 고대의 불교미술품이 상대적으로 적어 불교문화의 시대별 양상과 특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제주지역도 육지와 마찬가지로 고대 문화의 주류가 불교 문화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선후기 郭屹과 李衡祥에 의한 毀佛政策은 오늘날 제주지역의 고대 불교문화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주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제주지역에 남아있는 불교 관련 석조미술품은 작으나마 제주지역 불교문화의 양상을 살피는데 유용한 자료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제주지역을 섬과 육지라는 이분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상호간 차별화된 특징을 찾거나, 제주지역이 육지와는 다른 문화가 향유되었을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제주도가 섬이기는 했지만 古來로부터 육지와 교류하면서 동일한 문화를 형성 발전시켜 왔다. 한국 고대문화의 주류였던 불교문화도 마찬가지였다. 현재 제주지역에 불교가 언제 처음 전래되었는지는 분명하게 알 수 없지만 고려시대에는 불교가 널리 신앙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측면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석조

48) 金尙憲, 『南槎錄』, 風物.

미술이 수정사지 청석탑과 원당사지 오층석탑이다. 이후 조선시대 들어와 육지는 불교계가 일시적으로 위축되었지만 제주지역은 불교가 큰 장애없이 지속적으로 신앙되었음을 동자복과 서자복으로 불리는 조각상이 전해주고 있다. 그런데 조선후기에는 육지와 다르게 대대적인 毀佛政策으로 인하여 불교계가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제주지역도 꾸준하게 불교가 주요한 신앙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존자암과 태암사지 부도가 그러한 사실을 간접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다. 그리고 제주지역 불교문화는 섬이라는 지리적인 특수성이 있어 육지와 차별화된 측면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육지와 상통하면서 발전하였다. 다만 제주지역 불교는 육지보다 재래의 민간신앙과 습합된 측면을 강하게 보이고 있어 한국불교의 通佛敎의인 측면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제주지역이 오래전부터 육지와 마찬가지로 불교가 성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상응할 만큼 불교 관련 유적이거나 유물이 많지 않다는 점은 아쉬운 점이라 하겠다. 향후 제주지역 불교문화의 양상과 특징 등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많은 자료가 발굴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1. 원전

- 『南槎錄』(金尙憲) / 『南宦博物』(李衡祥) / 『新增東國輿地勝覽』 /
 『朝鮮佛敎通史』(李能和) / 『太宗實錄』 / 『耽羅志』(李元鎮) / 『耽羅誌草本』(李源祚)

2. 저서

- 고창석, 『제주역사연구』, 도서출판 세림, 2007.
 국립제주박물관, 『제주의 역사와 문화』, 2001.
 _____, 『섬, 흙, 기억의 고리』, 2009.
 김일우, 『고려시대 탐라사 연구』, 신서원, 2000.
 서귀포시, 『서귀포시 문헌자료집』, 1998.
 이영권, 『제주역사기행』, 한겨레신문사, 2004.
 장어환, 『중국담』, 산서인민출판사, 2000.
 (재)불교문화재연구소, 『한국의 사지』 현황조사 보고서 下 - 전라남도 2, 2011.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 『제주의 폐사지』, 2004.
 제주불교사연구회, 『근대제주불교사자료집』, 2002.
 제주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 『탐라, 역사와 문화』, 1998.
 진영일, 『고대 중세 제주 역사 탐색』, 보고서, 2008.
 홍윤식, 『한국불교사의 연구』, 교문사, 1998.

3. 연구논문

- 강창연, 「제주도의 불적」, 『탐라문화』 12,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2.
 _____, 「제주 범화사의 고고학적 연구」, 『제주도사연구』 9, 제주도사연구회, 2000.
 고재원, 「옛 원당사지 발굴조사와 역사고고학적 의의」, 『제주문화』 12, 제주문화원, 2006.
 고정룡·엄기표, 「양양 도적사지의 사적과 청석담」, 『박물관지』 제20호, 강원대학교 중앙박물관, 2014.
 국립제주박물관 편, 『유적과 유물을 통해 본 제주의 역사와 문화』, 서경문화사, 2009.

- 김희경, 「제주 불탑사 오층석탑을 찾아서」, 『미술사학연구』 228·229호, 한국미술사학회, 2001.
- 김동진, 「제주 법화사의 창건과 그 변천」, 『탐라문화』 20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9.
- 김봉옥, 「제주불교의 기원」, 『탐라, 역사와 문화』, 제주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 1998.
- 김일우, 「고려후기 제주 법화사의 중창과 그 위상」, 『한국사연구』 119, 한국사연구회, 2002.
- 김일우, 「고려후기 제주·몽골의 만남과 제주사회의 변화」, 『한국사학보』 15, 고려사학회, 2003.
- 문명대, 「법화사의 역사와 의의」, 지방문화재 제주법회사 복원을 위한 학술세미나발표요지, 서귀포시, 1985.
- 박현규, 「제주도 법회사 삼존불상과 남경 대보은사의 관계」, 『중국사연구』 제58집, 중국사학회, 2009.
- 엄기표, 「조선 세조대의 불교미술 연구」, 『한국학연구』 제26호,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2.
- 엄기표, 「조선시대 사찰에서 유교 관련 시설로의 전환 - 불교와 유교의 병존」, 『도봉서원 기록으로 되살린 역사와 건축』, (재)역사건축기술연구소, 2015.
- 엄기표, 「한국 범자 진언명 동경의 특징과 의의」, 『역사문화연구』 제58집,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16.
- 이봉춘, 「조선전기 승불주와 흥불사업」, 『불교학보』 제38집, 불교문화연구원, 2001.
- 정성권, 「제주도 돌하르방의 기원과 전개」, 『탐라문화』 제50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5.
- 조성윤, 「제주도 해양문화 전통의 단절과 계승」, 『탐라문화』 42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3.
- 조영록, 「제주 법회사 삼존불의 남경 이치와 만공의 입명 전법」, 『명청사연구』 제35집, 명청사학회, 2011.
- 진영일, 「고려전기 탐라국 연구」, 『탐라문화』 제16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6.
- 최인선, 「제주도 정방사 소장 순천 대홍사 석조여래좌상과 복장물」, 『문화사학』 제23호, 한국문화사학회, 2005.
- 한기문, 「고려시대 자복사의 성립과 존재 양상」, 『민족문화논총』 제49집,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1.

한성욱, 「고려시대 제주의 문화유적」, 『유적과 유물을 통해 본 제주의 역사와 문화』, 국립제주박물관, 2009.

현문필, 「존자암의 창건에 관한 고찰」, 『제주도연구』 35집, 제주학회, 2011.

_____, 「출토유물을 통한 원당사지의 조성시기와 성격 고찰」, 『제주도연구』 33집, 제주학회, 2010.

4. 발굴보고서

명지대학교 박물관, 『법화사지 발굴조사 보고서』, 1983.

제주대학교 박물관, 『존자암지 발굴조사 중간보고』, 1993.

_____, 『법화사지 간략조사보고』, 1987.

_____, 『법화사지』, 1997.

_____, 『수정사·원당사 지표조사보고서』, 1998.

_____, 『수정사지』, 2000.

_____, 『제주 용담동 유적』, 1993.

_____, 『존자암지』, 1996.

제주문화예술재단, 「원당사지」, 『제주시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2007.

Abstract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 and Historical Significance of Buddhist Stone Art in Jeju province

Eom, Gi-Pyo*

The Buddhism has been officially recognized in the Three Kingdom Ages. It has become much larger and more brisk, buddhist culture was in flourish at the Unified Silla. It was centering around the East Asia in those days. At that time, the Ancient Jeju country was interchange between the land and the foreign country. This fact is identified as the relics and remains of the jeju province. In view of these facts, we can estimate that the Buddhist flow in Jeju province. But, we have no the certain evidence.

The Buddhism was deeply religious in the Korea dynasty. The Buddhist temple had been established all over the country. It is not very long since the Jeju province was established the Buddhist temple. Especially, the Buddhist temple had been intensively established in the late Korea dynasty. Therefore, we can know that the Buddhist culture has great developed in the late Korea dynasty. The Buddhism keep the central religion of Jeju province in the Korea dynasty. This tendency maintain till the Chosun dynasty. At one time, many Buddhist temple

* Prof. of Dankook University.

were demolished by the Jeju government official. After a file, the Buddhism got back central religion in the Jeju province. Those representative temples were the Suchung-temple, Bubhwa-temple, Wondang-temple, Jonjaam-temple within the Jeju province.

The Buddhist culture of Jeju province had been mixed with a popular belief more than the land. That is also reflected of the geographic specific character. The Buddhist center culture of Jeju province is the stone art. It was within the same range culture of the land. But, the Jeju region is not enough buddhist relics and remains for Buddhist history and culture, development, and aspect of the Jeju province. Put our hope in expectation of an epoch-making discovery.

Key Words : Jeju province, Tamla, Buddhism, Buddhist temple, Buddhist temple site, Stone art.

교신 : 엄기표 16890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단국대학교 교양교육대학
(E-mail : pentieum@hanmail.net)

논문투고일 2016. 12. 14.

심사완료일 2017. 02. 05.

게재확정일 2017. 02. 07.